

第 25 次 定期總會會議錄



— 개회식 광경 —

일시 : 1979년 3월 30일 오후 2시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대강당

안건 : 1. 개회식

- 2. 제 11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 3. 1978년도 사업실적보고
- 4. 1978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
- 5. 197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6. 임원개선
- 7. 회비 재조정에 관한 일
- 8. 기 타

참석회원 : 참석 213명

위임 96명

계 309명

회의내용

1.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사(김종호회장)

축사(대한출판문화협회장)

2. 제11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연구상 3명

단체공적상 3개도서관

개인공적상 5명

봉사상 7명

감사패 : 이창감서울시교육감의 7명에게 수여 함.

-5분간 휴회-

성원보고 : 단체회원 526명중 참석 213명 위임 96명
계 309명으로 회의 정족수 263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사무국에서 보고 하다.

-의장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축개를 선언하다

3. 1978년도 사업실적보고

박대권 사무국장이 유인하여 배부된 1978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하다.

-의장의 질의 요청에 대하여-

① 도서관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의 설명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박대권 사무국장은 도서관발전
계획안 작성은 이봉순 부회장이 주도하여 작업중에 있
고 곧 완성될 것이며, 아울러 정부당국에서 도서관육
성에 대한 관심표명이 있음을 보고 하고 따라서 정부
의 요청에 의하여 그간 도서관 육성책에 대한 각종 자
료를 적극 제공함과 아울러 자문을 해 준 바 있다고
설명하다. 이러한 정부의 도서관육성계획은 최종결정
이 아직 되지 않아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금명간 희망
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하다.

② 사서교사 진로문제 해결의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
하다. 이에 대하여, 박대권 사무국장은 사서교사의 상
위직급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설외활동을 전개하였음
을 말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교육법개정을 통하
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나 법을 개
정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우선 문교
부의 행정지시로 사서교사의 상위직 승진의 기회를 마
련토록 추진한 바 문교부의 실무자들도 타당성을 인정

하였고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 질 것으로 생각되나, 도서관학과 출신의 사서교사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하다. 최종적으로는 교유법 등의 관계 법규가 적합하게 개정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우리겠다고 말하다.

③ 내무부 소관 사서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의 소속청 2원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특히 사서직의 처우개선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다.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 만장일치로 접수하다—

4. 1978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가. 1978년 결산에 대하여 박대권사무국장은 유인하여 배부된 1978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보고 하다. 아울러 78년도에는 회원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77년도보다 세입이 거의 100%나 신장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의 부채도 줄고 앞으로 협회재정난 타개에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감사의 말을 하다.

나. 이어서 김남석 감사는 1978년도 회계감사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다.

—의장의 질의 요청에 대하여—

① 세입집행 결손의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다.

이에 대하여 박대권 사무국장은 본협회의 예산은 정부예산과는 달리 회비가 징수되고 사업이 집행되어 수입이 있어야 세출의 집행이 가능한 매우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78년도의 세입결손도 계획된 세입 실적 이 어쩔수 없이 미달되었으며 회원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이 요망되며 79년도에는 세입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출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협조를 요망한다고 답변하다.

② 결산서 양식중 미수액(결손)이란 용어가 적합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다. 이에 대하여 박대권 사무국장은 연구하여 시정겠다고 답변하다.

—질의가 종결되고 통과시키자는 동의와 제청 삼청이 접수되었고 개의가 없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다—

5. 197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박대권 사무국장이 유인하여 배부된 197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에 의하여 사업별 및 항목별로 세입세출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의 질의요청에 대하여—

① 자립재정 대책을 마련키 위한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결산보고시 사무국장이 말한 바대로 적극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출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회원의 협조를 약속하기로 의견을 모으다.

② 협회와 회원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협회가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요망하다.

③ 18개 목적사업비와 수용비 등 관리비를 포함하여 69,500,000원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집행되도록 회원들이 뒷받침하도록 다짐하고 통과시킨 것을 동의하다.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삼청이 접수되고 개의안이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수정없이 통과시키다—

6. 임원개선

의장은 임원개선에 관련된 정관 규정을 전회원에게 낭독할 것을 지시하고 사무국은 관련규정을 회원들에게 낭독하다. 이어서 의장은 임원개선에 앞서 평의원을 먼저 선출해 줄것을 요청하고 선출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다.

① 이에 대하여 윤구호회원은, 전년도의 예에 따라서 전형위원을 4개관종별로 각 1인 계 4명과 도서관학계 1명과 사무국장, 개인회원중 1명 도합 7명의 전형위원을 선출하고 이 전형위원회로 하여금 평의원 40명과 임원 15명을 모두 선출토록 위임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다.

—이에 대하여 제청 삼청이 접수되고 개의안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동의안이 채택되고 이를 표결한 결과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동의안을 통과시키다—

—의장은 동의안 통과를 선언하고 전형위원 선출방법을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다.—

—이에 대하여 관종별 및 전형위원은 관종별 및 학계별로 협의하여 그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개인회원은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이를 표결하자고 의견을 모으다—

—이에 대하여 의장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분야별로 별도의 협의시간을 마련키 위하여 명단이 제출될 때까지 휴회를 선언하다—

—25분간 휴회후 속개하다. —

—의장은 분야별로 제출된 전형위원 후보명단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 공공도서관분야 이승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관)
- 대학도서관분야 윤영대(카톨릭의대도서관 사서과장)
- 학교도서관분야 이정희(학교도서관부회 총무이사)

특수도서관분야 윤구호(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자료부장)

도서관학계 정필모(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교수)
개인회원 김윤태(국제과학문화연구소도서관장)

—의장은 제출된 명단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이의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통과시킴으로서 평의원 및 임원선출을 위한 전형위원이 선출되다. 아울러 의장은 총회폐회후 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다—

7. 회비재조정에 관한 일

① 협회의 자립재정확보책에 대하여 장시간 의견을 교환하다.

② 김낙영(전남대학교도서관) 회원은 협회의 재정확보책의 일환으로 단체회비와 개인회비를 적정히 인상하되 인상시기는 80년도부터 하고 인상액에 대하여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이사회 의 결정으로 확정하도록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다.

—이에 대하여 재정 삼청이 접수되어 채택되다—

—개의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통과시키다—

—의장은 회비인상에 대한 동의안의 통과를 선언하다—

—의장은 다른 기타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총회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록기명 날인 회원으로써 참석회원중 7명을 지명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1979年度 事業計劃

79年度 事業規模는 目的事業 16種과 事務局 運營등을 포함하여 總 21種의 事業에 豫算은 6천 9백 50만원이다.

昨年에 比하여 3種의 目的事業이 늘었고 豫算額도 1천 4백 50만원이 增額되었다. 이와같은 事業과 豫算規模의 확대는 78年度의 決算結果 77年度에 比하여 歲入實績이 크게 伸張되어 協會財政難打開에 밝은 展望을 안겨준데다가 協會事業을 보다 적극적으로 推進함으로써 점차 우리 圖書館界에 새로운 活力素를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새로 계획된 目的事業은 「圖書館 實務講座」와 「司書教師 研修會」 및 「韓國圖書館統計」이다.

「도서관실무강습」은 今年度에 發刊예정인 KDC와 KCR의 개정 3판에 대한 現場의 分類 目錄 擔當者에게

教育하는 것이고 「司書教師研修會」는 一線司書教師들의 資質을 向上시키고와 아울러 昇進기회를 넓혀주며 또한 앞으로 정부의 도서관육성책에 대비한 사서교사 養成 등을 目的으로 한다. 「한국의 도서관통계」책 발간은 77年度부터 積年으로 調査키로된 도서관 統計조사를 79年度에 이어서 실시하는 것이다.

今年度 事業計劃의 特色은 協會財政難打開을 위한 方案의 하나로 出版事業을 크게 확대시켰으며 目的事業을 되도록 收入을 考慮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이는 協會가 每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난을 다소나마 解消해 보겠다는 것으로서 협회는 그간 事業自體는 100% 完了하면서 完了된 사업비를 充當할 수 있는 歲入이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自然적으로 負債가 移越되는 惡循環을 최대한 制限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행키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와 성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음에 79年度 事業計劃을 概略적으로 紹介한다.

1. 權益擁護事業

圖書館人들의 地位向上과 權益을 保護伸張시켜 나가기 위한 活動을 적극 전개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現行 도서관법개정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의 도서관 육성책의 집행을 促求한다.

2. 全國圖書館大會

도서관봉사의 확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당면한 문제와 進路를 연구검토키 위한 第17回 圖書館大會와 第5回 圖書館人體育大會를 10月中旬에 地方에서 개최한다.

3. 圖書館週間 行事

4月 12日 부터 18日까지 1週日間 全國의 각도서관이 中心이 되어 실시하는 第15回 도서관주간행사가 실시된다. 이 행사는 圖書館의 重要度를 널리 認識시키고 圖書館事業을 強力한 社會運動으로 發展시키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

4. 讀書週間 行事

9月 24日 부터 30日까지 1주일간 第25回 讀書週間을 本協會와 大韓出版文化協會와의 共同主管으로 실시한다. 本會에서는 이 기간동안 독서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미독서층을 개발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리며 포스터와 표어를 인쇄 배포한다. 全國의 각도서관에서는 自體行事計劃을 수립하여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한다.

5. 「도협월보」發行

圖書館운영에 관한 연구논문과 館界의 動向과 會員

의 정보교환을紹介하는本協會機關誌를每月2,000部年10책을발행하여會員과國內外關係機關에配付한다.

6. 指導育成事業

地區協會 및 部會의 사업을支援하며各기관에서刊行되는非賣刊行物を수집하여會員도서관에年50,000卷정도를배부할계획이다.

7. 再教育事業

各級도서관에근무하는中堅司書들에게새로운圖書館學에관한理論과實際를再教育하는사업으로서今年에는第3回現代圖書館學講座를11月中 실시한다.

8. 圖書館實務講座

今年도에발간예정인「한국십진분류법」(KDC)과「한국목록규칙」(KCR)개정版내용을현장의[分類目錄담당자에게교육함과 동시에最近의分類目錄에관한새로운理論을교육한다.

9. 司書教師研修會

司書教師의地位와資質을向上시키고도서관발전계획에對備한學校도서관의人力수급대책의일환으로새로운도서관학이론을사서교사및도서관담당교사들에게學校방학동안2회에걸쳐10일간60時間의강습을文敎부와共同주관으로실시한다.

10. 圖書館統計調査

1979年度도서관통계조사를실시하여「한국도서관통계」책을발간하고이를관계기관과회원도서관에도서관운영과정책입안의기초자료로서널리제공한다.

11. 表彰事業

第11回韓國圖書館賞施賞과圖書館發展에貢獻한有功者를表彰한다.

12. 出版事業

圖書館運營資料와書誌資料를發刊하여各도서관과圖書館學科의教材로서 보급함으로써圖書館發展에기여하고本會제원을확보한다.

今年도에는運營書23種을발간하여각급도서관에보급한다.

13. 國際活動事業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과의交流와기타각국도서관제와의교류를추진한다.

14. 資料室運營

協會事務局內에國內外의各種도서관關係資料를미치하여會員들에게提供한다.

15. 其他事業

本會目的達成에필요한여러가지사업을계획하여施行한다.

1979年度 圖書館統計調査에 對備하여

그동안 圖書館統計로서 「한국도서관통계」책이 每年 本協會의 調査實施로 發刊되어 왔으나 未備點이 많이 發見되고 있습니다. 實際 基本資料의 調査過程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으로 해서 많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좀체로 補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統計冊은 國內唯一의 韓國圖書館統計資料로서 利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本協會는 더욱 무거운 責任感을 가지고 完全한 것으로 補完하기 위하여 꾸준히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現場에서의 基本資料의 未備와 記入의 不確實性 등으로 圖書館現場의 綜合的 파악은 물론 統計解析과 그 應用의 發展을 期할 수 없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現狀은 우리 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의 一般의인 추세로서 지난 1970年 유네스코總會는 이를 重視하여 「國際圖書館統計表 標準에 관한 勸告」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本協會는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권고에 副應하면서 그간의 未備點을 補完하여 統計의 效果的인 國內利用을 圖謀코자하여 종전의 調査表 樣式을 대폭 增補하여 各圖書館에 發送할 예정입니다.

本 調査表 양식의 決定은 教育調査分科委員會에서 作成할 것으로 수차에 걸친 檢討와 研究를 거듭하여 우리나라 統計가 國際圖書館統計 標準에 到達되고 아울러 우리의 實情에 必要한 內容을 포함시키도록 努力할 것입니다.

그러나 統計의 실효성은 무엇보다도 基本資料記入의 正確性에 있음으로, 各圖書館에서의 誠意있는 記入이 先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積極的인 協助를 要望하면서 앞으로 各圖書館에 發送될 調査表內容을 정확히 이해하여 記入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본협회는 그간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한 바 있으나 지난 77년부터는 2年마다 실시키로 하여 78年 통계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 도서관통계의 정비는 도서관 운영의 基本資料가 되는 것이니만큼 각 도서관 운영의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앞으로 본협회의 통계조사표 제출을 위하여 지난 77年度 통계양식을 참고하여 미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各도서관에서는 1978年 4月 1日부터 1979年 3月 31日까지 1年間の 도서관 統計를 정확히 作成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